

# 달라진 류현진... '포스트시즌 선발 후보'

마에다나 힐·매카시 대신 거론... LA 타임스, "류현진 흥미로운 상황 만들 수도 있다"

‘괴물’의 면모를 되찾은 류현진(30·LA 다저스)이 이제 포스트시즌 선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5선발을 두고 경쟁하다 불펜 투수로 밀렸던 때를 떠올리면 완전히 판판이다. LA 타임스는 8일(한국시간) ‘포스트시즌’에 선발로 나설 것 같은 투수 3명을 꼽아 달라는 독자의 질문에 “다저스는 아마도 클레이튼 커쇼, 다르빗슈 유, 리치 힐, 알렉스 우드를 포스트시즌에 선발로 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류현진이 흥미로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한과 다저스 선발 투수들이 모두 건강하다면 커쇼와 다르빗슈, 우드는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될 것’이라며 ‘힐의 탈삼진 능력은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류현진과 마에다 겐타는 아직 그들의 능력을 모두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선발 자원이 넘쳐나는 다저스에서는 선발 다섯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포스트시즌에는 선발 투수진을 3, 4명으로 꾸리는 경우가 많아 선발 지원 포화 상태인 다저스가 어떻게 포스트시즌 전력을 꾸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시즌 15승 2패 평균자책점 2.04를 기록한 커쇼가 부상을 털어낸다면 당연히 포스트시즌에도 에이스로 활약할 전망이다. 여기에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다르빗슈 유(7승 9패 평균자책점 3.81), 우드(13승 1패 평균자책점 2.33)는 포스트시즌에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류현진(4승 6패 평균자책점 3.53)과 마에다(10승 4패 평균자책점 3.79), 리치 힐(8승 4패 평균자책점 3.47), 브랜던 매카시(6승 4패 평균자책점 3.84) 중 한 명이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성기적 모습을 되찾은 류현진이 마에다나 힐, 매카시 대신 거론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어깨와 팔꿈치 수술을 받고 2년간의 암흑기를 보낸 류현진은 올 시즌을 앞두고 복귀했지만, 빅리그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거뒀던 2013년과 2014년 같은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구석이 떨어진 직구는 메이저리그 강타자들의 장타로 이어졌고, 긴 이닝을 소화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결국 선발 경쟁에서 밀려 지난 5월 말에는 한 차례 구원 등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스타전 이후 등판한 3경기에서 패배없이 1승 평균자책점 0.95로 부활한 모습을 자랑했다. 최근 5경기에서 20%이닝을 던지면서 평균자책점 1.82를 기록했다. 매 경기 50이닝 이상씩 소화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과 전날 뉴욕 메츠전에서는 잇달아 7이닝 무실점 역투를 선보였다. 포스트시즌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류현진이 가을잔치 선발 마운드에 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포스트시즌에 통산 세 차례 선발 등판한 류현진의 통산 성적은 1승 평균자책점 2.81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30)이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뉴욕 시티 필드에서 벌어진 뉴욕 메츠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 배구 김연경 “육성 시스템 필요성 말한 것”

여자배구대표팀 주장 김연경(상하이)이 이재영(중국생명)을 지목한 자신의 발언이 의도와 달리 전달되고 있다며 바로잡기에 나섰다. 김연경은 8일 매니저먼트사인 PPA를 통해 “내 의견은 대표선수의 관리뿐 만이 아닌 인재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었다. 이를 설명하는 와중에 이재영 선수 실명이 거론됐지만 이는 이재영 선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선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연경은 지난 7일 제19회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 이재영이 이번에는 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은 부상을 이유로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와 아시아선수권을 모두 건너뛰었다. 김연경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이재영은 큰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재영의 몸 상태가 대표팀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으며 구단이 진화에 나서지만 여전히 여론은 냉담하기만 하다. 김연경은 “처음 보도와는 다르게 이후 보도된 내용들은 취지는 크게 벗어나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특히 나와 이재영 선수의 관계에 대한 추측성 기사 및 악성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끝으로 김연경은 “실명이 거론돼 상처를 받았을 이재영 선수에게 미안함을 전달하며, 더 이상의 추측성 기사 및 악성댓글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근기자



# ‘블랙핑크’ 데뷔 1년만에 1억뷰 뮤비 4개 보유

‘봄바야’ · ‘불장난’ · ‘휘파람’ 이어 ‘마지막처럼’ 까지

데뷔 1주년을 맞은 YG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그룹 ‘블랙핑크’가 높아지는 인기를 확인하고 있다. 8일 YG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가 K팝 그룹 최단기간인 46일을 맞은 이날 새벽 1시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 앞서 트와이스가 ‘TT’로 세운 걸그룹 기준 최단기록인 71일을 무려 25일이나 앞당겼다. 특히 1억뷰 돌파 날짜인 8월8일은 블랙핑크 데뷔 1주년으로 겹경사를 맞이하게 됐다. 블랙핑크는 이에 따라 ‘봄바야’, ‘불장난’, ‘휘파람’에 이어 ‘마지막처럼’까지 1억뷰 뮤직비디오를 4편이나 보유하게 됐다. YG는 “데뷔 1년 만에 이런 기록으로 K

팝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자랑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표한 ‘봄바야’ 뮤직비디오가 현재 1억 9631만2842뷰를 기록, 머지않아 2억뷰 뮤직비디오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작년 8월8일 ‘휘파람’과 ‘봄바야’를 발표하며 데뷔한 블랙핑크는 1년 만에 대세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YG가 2NE1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걸그룹으로 주목 받았다. K팝 신인 걸그룹 사상 최단 기간인 14일 만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 트로피를 품에 안는 등 화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데뷔곡으로 최초이자 최단 기간 내 미국 빌보드 월드디지털송 차트서 1~2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후 ‘불장난’, ‘마지막처럼’까지 3곡

연속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 앨범이 아닌 단일 싱글로 해외 18개국 아이튠스 1위 기록도 세웠다. 블랙핑크 멤버들인 지수, 제니, 로제, 리사는 YG를 통해 “데뷔할 때부터 놀랄만한 성적들을 이루게 된 배경에 항상 팬 분들이 계셨다. 큰 관심과 응원 덕분에 이를 수 있었던 일들이라 생각한다”고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전했다. 이어 “매일매일 감동받고 있다.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어서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하고 싶다”며 “지금 1년 밖에 안됐지만 10년, 20년 함께하고 싶다. 팬클럽 ‘블링크’한테 자랑스러운 블랙핑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블랙핑크는 오는 30일 일본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현지 활동에 나선다.

/뉴시스



## ‘택시운전사’ 500만 관객 넘어 ‘올해 최단 기록’

영화 ‘택시운전사’(감독 장훈)가 개봉 일주일 만에 500만 관객을 넘겼다. 올해 최단 기록이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이날 오전 9시 2220명을 추가해 누적 관객수 500만명 고지를 밟았다(501만1974명). 영화는 전날 1745개관에서 8569회 상영, 56만2780명이 본 바 있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5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택시운전사’ 포함 6편이다. ‘공조’(781만명) ‘스파이더맨: 홈 커밍’(724만명) ‘군함도’(617만명) ‘더 킹’(531만명) ‘너와 나’(513만명) 등이다. ‘택시운전사’의 흥행세는 개봉 2주차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예매 관객수 8만19840명(예매 점유율 41.0%)으로 예매 순위 1위에 올라섰다.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서울 택시 기사가 독일에서 온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송강호가 택시 기사 반섭을 연기했고, 기자 휘트젠 힌츠페터는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맡았다. 유해진·류준열 등이 출연했다. 영화는 영화다(2008) ‘의형제’(2010) ‘고지전’(2011) 등을 만든 장훈 감독이 연출했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